

# 생각이 곧 화두, 화두가 곧 생각

었는데 스님조차도 알 수 없었다. 그때 동원 스님의 솜씨를 알아본 흥법 스님이 은사 혜각 스님(1905~1998)을 소개했다.

은사스님은 선수행을 겸비한 철저한 율사였다. 부처님 가르침에서 한 치의 어긋남도 없이 살았던 은사스님은 상좌가 도량에서 라면만 끓여먹어도 쫓아낼 정도로 엄했다.

은사스님이 제주도 한 사찰에서 단정할 때 일이다. 누군가가 사은 간식에 알개 흰 오징어 조각을 모르고 먹었던 혜각 스님은 사실을 알고 난 후 해우소에서 먹은 것을 모두 토해냈다. 스님은 풀도 부처님이라면 절하고, 나물도 고기라고 하면 토해내던 깊은 신심과 천진한 성품의 선지식이었다.

다른 이들에게는 엄했던 혜각 스님이었지만 동원 스님에게만은 한없이 따뜻했다.

스님은 "필양 금강대 토굴에서 은사스님을 모시고 3년을 살았을 때도 야단 한번 맞은 적 없었다"면서 "사명암도 은사스님이 '조용히 들어 살아보자'고 해서 찾아왔다"고 말했다.

동원 스님은 은사스님 시봉을 수행 삼고, 붓을 죽비와 목탁 삼아 평생을 살아왔다.

스님은 "생각 생각이 모두 선으로 선 아닌 것이 없다"고 말했다. 더 나아가 "나에게는 생각이 곧 화두요, 화두가 곧 생각이다"라고 강조했다.

"마음으로 생활하며, 선은 마음 뉘는 것이라 일상생활과 선은 둘이 아니잖아요? 또, 영원한 것은 없어요. 다 허망합니다. 영원한 것이 있다면 불심 자성 본성 뿐이지요. 때문에 누구나 마음 뉘는 것을 일 삼아 살아야 해요."

동원 스님은 항상 바쁘다. 이 날도 스님은 화실에서 열죽탕하는 '쪽'이 아닌 '죽'으로 샌드 규모의 시왕행을 그리고 있었다. 40년 넘게 단청과 탕화를 그려온 스님의 손길은 전국 사찰 곳곳 안방은 곳이 없다. 캐나다 서광사, 청도 운문사, 대구 동화사 등 100여 사찰에 단청 불사화를 하고 국내 최대 후불탱화로 손꼽히는 조계사 대웅전 탕화(750cm×450cm)를 그린 것도 동원 스님이다.

원력과 신심으로 울곧게 작업해 온 스님이기에 제법에서는 "고려불화에 준하는 세밀한 탕화를 조성하는 곳은 사명암 동원 스님 뿐"이라는 찬탄이 끊이지 않고 있다.

특별한 비범이 있을까? 나그네는 스님이 훗시 은사스님에게 남다른 필법이라도 전수받은 것



'아미타불'하고 지나갔다. 그 후로 '아미타불' 정근을 계속하고 있다"고 말했다.

동원 스님은 "기도를 하기 전 자기부터 바로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도에 분별을 두는 것이 바람직하지는 않지만, 근기따라 수행법이 다르듯 자기에게 맞는 기도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기에게 덕이 없다면 관음기도를 해야 겠지요. 덕은 자비를 뜻하니까요. 자기가 지혜가 부족하다 싶으면 문수행을 하고 문수기도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 살아가는데 원망과 원결, 장애가 많다면 <지장경>을 독송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생각은 항상 많은데 실행이 따르지 못하는 분에게는 보현행과 보현보살 기도를 권합니다."

스님은 "자기 업을 보는 것은 자기가 원하는 것을 바로 아는 것과 같다"고 말했다. 이성, 돈, 기술 등 자기가 원하는 것이 자기의 업이라는 설명이다.

동원 스님은 "팔만사천 법문이 곧 마음"이라면서 "펼치면 시방세계를 두루 덮고도 남고, 감추기만 하면 실오라기 만큼도 보이지 않는 것이 마음"이라고 말했다.

스님은 "부처님을 그리는 탕화는 경전을 그려 내는 작업"이라면서 "문수보살은 지혜를, 지장보살은 대원을, 관음보살은 자비를 그리는 것이며, 부처님은 진리를 표현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옛날에는 탕화를 '탱(幀)'이라고만 했지 탕화라고도 안했습니다. 예술작품으로 인식하면서 '탱화'라 불리기 시작했습니다. 100년 전 탕화를 보면 등분이 안 맞아요 그림에 힘(기운)이 느껴집니다. 원력과 신심으로 조성했기 때문인 것을 근래에야 알게 됐습니다."

스님은 "32상 80종호를 갖춘 부처님은 앞·뒤를 비롯해 어느 방향에서 보아도 부족함이 없는 존재입니다. 내가 그린 탕화가 그런 부처님을 잘 표현하고 있는지 부끄러울 따름"이라고 말했다.

중요무형문화재는 우리시대 한 분야의 최고 장인을 일컫는 칭호이다. 40년 넘게 탕화와 단청을 그리며 은사스님을 이어 일가를 이룬 동원 스님. 스님의 겸손은 영취산을 넘어가는 태양과 같았다. 아침이면 떠오르는 태양처럼, 내일이면 다시 원력과 신심 가득한 붓을 쥐고 부처님을 사바세계에 나누게 할테지만.

글=조동섭 기자 · 사진=박재원 기자



## 활안 스님의 내가 만난 선지식 禪

### 81. 미주 포교의 선구자 삼우 스님

캐나다와 미국 동부지역에서 서양불자들에게 미국식 한국선을 가르치고 있는 삼우 스님은 미주포교의 선구자다. '망치를 들고 불자들과 함께 절을 짓는 스님'이란 미국 언론의 소개는 스님의 인생을 가장 잘 표현한 대목이라 할 수 있다.

경남 진주 출신으로 1941년 범어사 동산 스님께 출가해 설봉 스님에게 선을 배운 삼우 스님은 1966년 일본 임제종 평립사와 광덕선사에서 수학하며 '무연대비'(無緣大悲)의 정신으로 세가지 원을 세웠다.

첫째는 바른 생각과 정직한 행동으로 개척불교에 앞장선다.

둘째는 서양불교 개척은 나의 역사적 사명이다.

셋째는 대화와 친선을 통해 세계평화를 실현한다.

자가 만료돼 미국을 떠날 수밖에 없었다. 스님과 인연이 닿은 프랑스 소르본대 불만 교수가 콜롬비아대학 개리 제가드 종교학과 교수와 호레이스 포리스 박사에게 소개해 한국선불교를 알릴 필요성을 설득했지만 결국 미국을 떠나야만 했다.

스님은 1968년 2월 캐나다 몬트리올로 떠나 맥길대 철학과 교수들과 시민운동을 펼친다. 삼우 스님은 반전 운동과 연계해 시민선방을 만들고 그곳 학생들이 참선 등으로 마음을 다스릴 수 있도록 했다.

몬트리올 맥길대에서 4년 동안 시민운동에 전념한 스님은 토론토 대학 근처로 다시 거처를 옮겼다. 스님은 식당, 우체국에서 아르바이트 등을 하며 뉴욕 사회운동가로부터 연구비를 지원받아 2년간 한국선불교 연구를 진

미국 사회에서 문재야로 낙인찍힌 미국청년들에게 선문화를 알리기로 결심한다. 스님은 제자들과 함께 토론토 우범지대 헌 집을 사할로 가꾼다. 스님은 제자들과 함께 매일 아침 5시에 108배를 올리고 참선을 한 뒤 공사에 들어갔다. 이때부터 스님에게는 망치가 '신심의 도구'가 됐고 공사현장은 수행의 깨달음을 실천하는 장이 됐다. 1979년 그렇게 토론토 선련사가 완공됐다.

스님은 토론토 뿐만 아니라 미국 동부지역에 불교를 널리 알렸다. 1981년에는 미국 미시건주 앤아버에 자혜불교회(Buddhist Society for Compassionate Wisdom)를 설립했으며 1991년에는 시카고에 선원을 열었다. 멕시코 멕시코시티에도 선원(Centro Zen Budista)을 설립했다. 스님은 선원 개원 외에도 1986년 시카고 미륵승가대학(Maitreya Buddhist Seminary)을

### 캐나다 미국 멕시코 등에 선원 개원... 미주불교 기반 다져

스님은 이러한 대서원을 갖고 1967년 8월 뉴욕에 도착했다. 맨해튼 42가 방 1개짜리 아파트를 얻은 스님은 UPS배달회사에 들어가 밤에 일을 하며 낮에는 미국사람들에게 참선을 가르쳤다. 스님이 선방을 먼저 개설한 것은 첫째, 실참 위주인 '선'이 미국인들이 쉽게 따라 올 수 있었기 때문이며 둘째, 들뜬 생각이 가라앉으면 성격등지(惺寂等持)의 평화세계를 체험할 수 있기 때문이었다.

스님의 맨해튼 선방을 찾아오는 사람들 중에는 마음공부를 위해 찾아오는 이도 있었지만, 당시 베트남 전쟁 징병을 피해 해외로 도망치려하는 청년 학생들도 많았다. 스님은 이러한 학생들에게 '차라리 반전운동을 펼치다 감옥에 가면 참선운동을 하라'며 피하지 말고 어려움에 직면해 이겨낼 것을 주문했다.

이러한 활동도 잠시 스님은 비

행한다.

스님의 포교활동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은 아이러니하게도 스님이 후두결핵으로 인해 요양원에 수용된 1973년부터였다. 스님은 그곳에 있는 12명의 환자에게 말없는 행동으로 '자타불이'(自他不二) '진속불이'(眞俗不二) '생사불이'(生死不二)의 가르침을 전했다.

40여일 만에 요양원에서 돌아온 스님은 선불교를 연구하는 것을 포기한다. 스님은 교학적 연구에서 벗어나 살아 숨쉬는 불교를 선양기 위해 3년 결사에 들어갔다. 스님은 땅을 빌려 농사를 지으며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참선을 가르치는 한편 먼 타국에서 고생하는 한국교포들의 마음을 어루만졌다. 스님의 지하 아파트에는 참선을 배우기 위한 사람들이 이차차 늘기 시작해 1976년에는 제자 수가 15명에 달했다.

스님은 희피 문화 등으로 당시

설립해 법사 양성에 나서서 등 미주불교의 기반을 다졌다. 또 스님은 1986년 미주 내 불교 종단의 교류와 협력을 위해 법사모임인 '북미의 선불교(Zen Buddhism in North America)'를 주관했다. 또 87년 8월간 '북미 세계 종교회의'를 성료하기도 했다. 스님은 불교수행자 '스프링 윈드'(Spring Wind)를 발행하는 등 문화포교에도 적극 나섰다.

미국포교의 기반을 다진 삼우 스님은 지금도 미주 지역에서 승려 및 법사 양성에 주력하고 있다. 스님은 노인불자들을 위해 공예부락, 장수마을을 찾아다니며 평화교원에 들어가 때까지 안심입명할 수 있는 길을 가르치고 있다. 바람을 지고 대중교통을 이용하며 불제자들을 직접 찾아다니는 스님의 실천적 민중불교는 재미교포 나뉘먹기식 불교운동을 혁파하는데 큰 가르침으로 다가온다.

### 해성불원(海成佛院) 자비회(慈悲會)

삼보에 귀의 하시고 부처님의 자비의 광명이 온누리에 비추어 중생들의 소원성취 이룩하도록 발원 하옵니다.

#### 베트남, 중국(한족), 필리핀, 캄보디아, 네팔, 몽골 아가씨와 짝지어 주기 운동

- 결혼정보 초혼·재혼 -

중국(한족)아가씨 신랑 한 사람 당 신부 열 명의 선을 보고 일일이 궁합을 보고 궁합이 좋은 아가씨 채택 방문하여 부모들을 만나보고 사는 모습과 미진한 점등을 묻고 살펴서 완전 무결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음 (스님의 직접 통역 하에)

□ 의심점이 있으신 분 먼저 중국에 결혼한 신랑들과 연결하여 투명하게 연결도 하여 드립니다. (원하시는 분들께)

□ 한족은 태국, 필리핀, 베트남 아가씨들과 똑같습니다. 우리말을 전혀 모르니까 (한국말을 나오면 가르쳐야 합니다)

□ 자격: 직장이 있는 자, 전세방이라도 있는 자 (직장 확인서 1통, 갑근세 증명서 1통, 전세 계약서 사본 1통)

⇒ 왕복항공료, 호텔숙박비, 식대, 국제결혼 서류 작성비

신부 입국 모든 제반 일체를 책임성 있게 일괄 처리

#### 국제결혼 서류대행

1. 번역	3. 친지방문
2. 공 증	4. 국적취득신청

상담 010-9955-9093

◆ 담당 : 만해 스님    함장 인천 광역시 남구 용현동 463-57 우.402-202 (전등사 내)  
주·야 핸드폰 010-5494-9595 / 전화 032)886-1661 / 070-8192-1661  
서울사무실 :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 3가704자빌딩1505호(해피씨티 내)

### 중년여성 일본 결혼 할 분

#### 준비 비용 일체 일본에서 부담

1. 불자 보살님들 여러분이 인도 하여 주시며, 형제같이 지낼 분
2. 본인이 여러남자 선을 보고 자유로 선택하여 결정함.
3. 3개월까지 무료 침식제공
4. 일본은 불교국가라 불자 우대
5. 우리도 넓은 세상을 바라봅시다.

#### 불교가족 선남 선녀 짝 지어 주기

불교가족 중 과년한 선남·선녀들에 한함, 재혼자 남·여 (가족 사항 자세히 기입 할 것)

#### 신청 방법

1. 명함판 사진 1매
2. 자기 소개 이력서(상세히)
3. 직장자택유무

자비회에서는 궁합을 보아 좋은 커플을 소개 하오니 율력으로 년월일 시를 정확히 기재 전등사 또는 서울 사무소로 신청서류 보내주세요.

담당스님 만 해 함장

## 사찰 연등 및 전선 (범당용)

초심의 자세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불자 기업입니다.

특정 가변고 설치 가능

원터치 연등 회전램피

SMD LED전구(국산정품)

고주구 128    민자구 268

### 불제대원기업

구입문의 (031) 986-0277~8    (02)2266-2634, 2263-2638  
구입문의 (032) 582-6235~6    구입문의 H-P 011-630-7092  
http://www.bulje.co.kr    공장 : 경기도 김포시 양촌면 석모리 287-2

#### 전선간격

22cm, 25cm, 28cm, 30cm, 40cm, 50cm, 1M, 2M, 3M, 5M, 8M, 10M 기타주문

#### 생산에서 시공까지 책임지겠습니다.

#### 사찰 LED전구 (정품)

- ▶ 고풍전구, 인지전구 (정품)
- ▶ 범당용, 외곽용
- ▶ 휠라멘트가 아닌 반도체로 되어 반영구적이다.
- ▶ 반도체로 되어 화재와 전기소모가 거의없다.
- ▶ 소켓 AC220V용으로 다양도로 사용

#### 사찰 램프전구 (정품)

- ▶ 고풍전구, 인지전구 (정품)
- ▶ 종류: 3W, 5W, 10W
- ▶ 특 휠라멘트로 빛이 율월히 밝고 절전효과가 있다.

#### 건전지용 초, 방생, 탐들이 행사용

#### 정사총통 및 초롱 길시대

#### 연 등 (정품)

범당등(공단등), 영가등, 오색등, 황금등, 주름등, 특수등

#### 권사찰, 범당, 외곽, 연등용 전 선 시 공